

영세상인 보호 '유통법' 대형마트 규제하고 쇼핑센터는 풀어줘

# “롯데 침단점 닫고 수완점 열면 무슨 소용?”

광주 수완점 쇼핑센터로 등록 ... 허점 많아 법개정 취지 어긋나

“롯데 침단점을 닫고 수완점을 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는 영업 제한이 ‘대형마트’란 적용이 되고 ‘쇼핑센터’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15일 광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과 광주 광산구청은 따르면 지난 7일 지식경제부는 대규모점포의 범위를 명기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업의 대상 중에서 대규모점포의 범위를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법규에는 대규모점포를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법 제12조의 2의 ‘영업시간 제한 점포’는 대규모점포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인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한정되게 됐다.

대형마트와 큰 차이가 없는 ‘쇼핑센터’가 제외된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등 영세상인들은 유통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경남 광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 상무는 “유통법 개정 취지는 영세상인을 보호해 상생 발전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자는데 있다”며

“하지만 대형마트는 제한하고 쇼핑센터는 풀어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실제 광주 광산지역의 경우 롯데 침단점은 ‘대형마트’로, 수완점은 ‘쇼핑센터’로 등록돼 있으며, 이마트 광산점과 홈플러스 하남점도 대형마트로 분류돼 있다.

입법에 고대로 시행령이 발표되고 광주시의회와 자치구의회가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의 의무업일을 지정한다면 롯데 침단점은 문을 닫아야 하지만 인근에 있는 수완점은 계속

영업할 수 있는 허점이 나타나게 된다.

광주시에 광산구도 영업 제한에서 빠진 쇼핑센터를 어떻게 적용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입법에 고된 시행령이 법 취지에 반하는 점이 있다”며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 의의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에는 대형마트 11곳, 쇼핑센터 1곳, SSM 15곳이 현재 영업 중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남 1500개 김 건조공장 전기료 ‘폭탄’

농사용→산업용 ... 2.7배 늘어

전남지역 1500여 개 김 건조공장이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됐다.

한전이 그동안 농사용으로 적용했던 김 건조공장에 대한 전기요금을 다음달부터 산업용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김 건조공장은 예전보다 전기요금을 2.7배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는 15일 그동안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했던 수탁 김 건조공장에 대해 오는 3월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을 생산한 어민들이 직접 건조하기보다는 전문 건조업체가 어민들로부터 김을 수매해 건조시설을 이용, 가공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김 건조공장은 최근 유가 급등에 따라 건조방식을 유류에서 전기 사용로 변경해 대규모·집단으로 전기 사용 신청을 함으로써 과도한 전력소비 투자가 발생하고, 지난 11년간 농사용 전기요금 동결에 따른 원가 회수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농사용의 경우 원가회수율이 32.8%인데 비해 산업용은 91%로 나타났다. 100원을 들여 전기를 공급해 농사용은 33원, 산업용은 91원을 회수했다는 것이다.

손실이 커지면서 한전은 전기요금

계산 방식을 농사용에서 산업용으로 바꿔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실제 농사용을 산업용으로 바꾸면 전기요금을 2.7배가량 더 걸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총 26만5593MWh의 전력을 사용한 전국 1888개 김 건조공장에서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114억2000만원을 걸었다. 이 중 김 주산지인 전남지역이 김 건조공장의 81.5%(1539곳), 사용량의 83.0%(22만5500MWh)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에 대해 전기요금 부과를 농사용에서 산업용으로 전환하면 전남지역 김 건조업체들은 지난해 95억원 가량을 썼던 전기요금을 올해 250억원가량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됨에 지역 어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어민들은 “한전이 갑작스럽게 전기요금 계산 방식을 바꾸는 것은 이익에만 급급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한전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물류비 투자비가 발생하고, 지난 11년간 농사용 전기요금 동결에 따른 원가 회수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농사용의 경우 원가회수율이 32.8%인데 비해 산업용은 91%로 나타났다. 100원을 들여 전기를 공급해 농사용은 33원, 산업용은 91원을 회수했다는 것이다.

손실이 커지면서 한전은 전기요금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실업률 2.9% 광주↓ 전남↑

호남통계청 고용 동향

1월 중 광주·전남지역 실업률이 2.9%를 기록, 광주는 하락하고 전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2012년 1월 광주·전남지역 고용 동향’에 따르면 1월 광주의 실업자는 2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8.8%(2000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2.9%로 전년 동기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광주의 1월 취업자는 66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만7000명(2.6%) 증가했고, 고용률은 55.5%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전남의 1월 실업자는 2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2.4%(5000명) 증가, 실업률은 광주와 같은 2.9%로 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1월 취업자는 85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만7000명(4.5%) 증가했고, 고용률은 59.9%로 2.4%포인트 상승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미즈존’ Q마크 획득 축하공연

15일 기능성 체형보정 여성리뷰 업체 ‘미즈존’(회장 김현옥) 임직원 3500여명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부여하는 Q마크 획득 기념 축하공연과 신상품 출시전을 가졌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대학생 전세임대 1000가구

## 입주자 모집 오늘 마감

LH, 23일 당첨자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학생 전세임대 10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16일 마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대상은 2012년 대학 입학자와 편입생이며, 입주 자격과 지원 방안 등은 지난해 모집한 9천가구와 같다. /연합뉴스

당첨자는 이달 23일 발표한다. LH는 앞서 공급한 대학생 전세임대 9천가구의 계약 실적(예정포함)은 총 4062건으로 배정 물량의 45%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계약이 완료된 건이 3052건이며 1010건은 권리분석을 끝내고 계약 대기 중이다. /연합뉴스

## 부당 단가인하 등 불공정 하도급 손본다

공정위, 직권조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부터 부당 단가인하·기술탈취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을 가동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한다.

구두 발주 관행과 단가인하 등 하도급 불공정행위가 여전한 실태 조사에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차금속, 섬유,

음식료 등 제조업종 6개계 사업주 대상으로 2010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 실태를 지난해 서면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특별대책에 착수한다 고 15일 밝혔다. 실태조사에서 수급사업자의 83.4%가 원사업자 1곳과 거래하고 매출액의 60% 이상을 의존하는 비율이 95.2%에 달했다. 또 수급사업자의 65.4%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도급을 수주해 원사업자에

‘절대약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은 원사업자 조사에서 44.9%, 수급사업자 조사에서 60.8%로 나타나 수급사업자가 느끼는 불공정행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법위반 혐의업체는 원사업자(41.3%)보다 1차 협력사(46.5%), 2차(53.2%), 3차(55.5%) 순으로 1차 이하의 협력사 간 불공정거래가 심했다. /연합뉴스

## 아시아나항공 투명경영 大賞

경총, ‘윤리경영’ 실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를 비롯한 경제 5단체는 15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제8회 투명경영대상 시상식을 열고 아시아나 항공에 대상 상을 수여했다.

이 회사는 경영진의 투명경영 의지와 노력이 ‘윤리경영’ 기업문화로 잘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협력사와의 상생, 장애인 등 소외계층 돕기, 헌혈 운동, 문화예술 지원, 아름다운 사문화, 환경·안전경영, ‘차별받지 않는 기업’ 등 ‘아름다운 기업 7대 실천과제’를 선정해 실천한 점도 인정받았다. 우수상은 대한송유관공사에 돌아

▲ 코스피지수	2025.32 (+22.68)
▲ 코스닥지수	537.86 (+2.50)
▲ 금리 (국고채 3년)	3.46% (+0.02)
▲ 원·달러 환율	1121.50원 (-2.4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광신대학교**

**2012-1 여자신학원(여전도사과정) 모집**

지원자격 : 세례교인인 자(학력제한 없음)  
 수업형태 : 2년(4학기) / 주 3일 / 야간제  
 교육일시 : 2012년 3월 5일 개강 / 한 학기 15주 / 매주 월·화·목요일 19:00 - 21:55  
 수강료 : ① 등록금 : 700,000원(한 학기당) ② 입학금 : 50,000원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cmx4cm 2매) 및 담임교역자추천서 1부 ※ 전월료 : 5,000원  
 혜택 : ① 매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교회봉사장학금 지급 ② 본교 중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학생증 발급(학생에 준하는 열람 및 대출가능)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교육일시(총100시간) ▶ 월, 화, 목, 금 오후 6:00~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자**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교학저 (062)605-1112, 1063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메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주의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